

부모자녀관계를 통한 전문직 여성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정 영 혜(인하대학교 석사과정) · 양 성 은(인하대학교 조교수)

본 연구는 전문직 여성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현상으로 하여 생애발달적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전문직 여성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으로 구축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Corbin 과 Strauss(2008)가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현재 부모가 생존해있으며, 전문직에 종사하는 미혼 여성 24명으로 선정되었다. 면접질문은 연구참여자의 아동기, 청소년기, 대학생시기에 따라 부모자녀관계가 어떻게 변화했고, 자아정체감 형성에 부모가 미친 직간접적 영향은 무엇이며, 성취 및 직업에 관한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수집은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개별심층면접이 이루어졌으며, 면접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한 후 전사하였다.

근거이론분석법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의 면접 전사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개념을 도출하고, 유사한 개념들을 무리지어 범주화시킨 후 범주들 사이의 관계성을 찾아 핵심범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코딩으로 개념을 명명하고 유사한 개념들을 무리지어 범주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162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이 개념들을 다시 유사한 내용끼리 통합하여 35개의 하위범주로 묶었으며, 이러한 하위범주들을 추상화시켜 12개의 상위범주로 도출하였다. 둘째, 축코딩에서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 결과, 인과적 조건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고민”, “도태에 대한 두려움”, “부모님의 기대와 믿음” 이었고, 현상은 “일에 대한 욕심과 성취감”이었으며, 맥락적 조건은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 “나에 대한 고민”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재적 조건은 “직업을 갖기까지의 힘든 과정”, “부모님의 지지와 갈등”, “부모님에 대한 이해”였으며, 작용/상호작용전략은 “새로운 나를 발견해나감”, “부모님과 나의 동일시”로 나타났다. 결과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은 나”, “부모님의 닮고 싶은 점”, “부모님과 닮아 극복하고 싶은 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의 면접내용을 바탕으로 핵심범주를 도출한 결과 “나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발전해나가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근거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가설적 진술문을 근거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해보면서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관계를 정형화한 결과, 핵심범주의 유형은 ‘자기주도 성취유형’, ‘현실 타협형’, ‘극복 노력유형’의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전문직 여성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동일시 및 투사를 반복한다. 특히 전문직 경력 성취와 관련해서 “나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발전해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중심주제로 대두되었다. 결국 전문직 여성의 자아정체감은 특정 발달단계에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생애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지속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자아정체감 발달에 대한 깊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